

Adaptation Process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CAPD Peritonitis

* Ji-Young Choi¹, Jung Pyo Lee², Hung Jung Oh³, Jung Tak Park³, Su Hyun Kim⁴
Ji Min Jeong⁵, Rock-Bum Kim⁶, Su-Myoung Hong⁷, Jang-Hee Cho¹
Sun-Hee Park¹, Chan-Duck Kim¹, Yon Su Kim², Shin-Wook Kang³
Chul-Woo Yang⁴, Nam-Ho Kim⁵ and Yong-Lim Kim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¹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²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³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⁴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⁵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ong-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⁶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⁷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End Stage Renal Disease in Korea

복막 투석 복막염은 복막 투석의 중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중증 복막염이 지속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국내 복막투석 환자들을 진료하는 많은 신장내과 의사들이 국제복막투석학회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라 복막투석 복막염을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복막염의 원인균 및 항생제 내성 양상은 국가 및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의료제도 및 정책 또한 다를 수 있어,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진료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말기신부전 임상연구센터 진료지침 개발위원회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복막투석 복막염 진료 지침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용개작 하였다.

진료지침의 수용개작이란 특정 문화와 제도적 상황에 맞게 개발된 진료지침을 다른 의료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체계적 접근법으로, 새로운 진료지침 으로 대체하거나 기존의 진료지침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진료지침의 수용개작 과정은 2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6단계는 기획 단계로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수용개작 계획표 등을 작성한다. 진료지침 개발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다기관, 다학제로 구성하였고, 승인기구는 대한신장학회로 정하였으며, 지침의 보급을 위해 유관 학회지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7-18단계는 수용개작 단계로, 진료지침의 범위와 목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침을 검색, 선별하며, 지침을 평가하고 선택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저자들은 진료지침의 범위를 복막투석 관련 감염 (복막염 및 출구 감염)에 관한 진단, 치료 및 예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진료지침의 사용자로는 1, 2, 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복막 투석 환자를 진료하는 신장내과 의사, 복막 투석 실 간호사 및 복막 투석 환자로 정하였다. 복막투석 관련 감염의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대한 13가지 핵심질문과 6개의 검색어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검색어를 이용하여 문헌검색을 시행한 결과 425건의 관련 문헌과 2010년 국제복막투석학회 복막염 진료지침을 포함한 8건의 복막염 진료지침이 검색되었다. 소아 영역은 제외하였으며, 사용 언어는 국문과 영어로 제한하였고, 최신성을 고려하여 2004년 이후에 발표된 3개의 진료지침을 수용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정된 3개의 진료지침 (2004 CARI guideline, 2010 British guideline, 2010 ISPD guideline)을 대상으로 AGREE II를 적용하여 진료 지침의 질 평가를 시행하였고, 이후 내용 및 근거 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이미 발표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국내 의료 현실을 고려하여 진료지침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근거 및 권고 수준을 기술하였고, 검색된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추가하여 수용개작 진료지침 초안을 작성하였다.

19-24단계는 확정 단계로, 외부 검토를 거쳐 공식적 승인을 받고, 진료지침을 최종 출판하는 단계이다. 작성된 수용개작 진료지침 초안은 자문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대한신장학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용개작된 복막투석 복막염 진료 지침이 국내 복막투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및 환자들에게 활발히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